고속도로 공사 지역기업 우대기준 적용 촉구

새만금~전주, 지역 상공인들 강력 촉구 성명 · 반영될 때까지 투쟁 불사

전주, 군산, 익산, 전북서남상공회의소의 협의체인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이선홍)가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공사 지역기업 우대기준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상협은 최근 초대형 규모로 건설되고 있는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중 6, 8공구에 대해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가 입찰방법을 기술제안으로 함에따라 지역업체 참여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라북도는 전국 건설업 100대 기업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 전무하고, 상장기업조차 하나도 없을 만큼 건설업의 규모가 영세한 실정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없으면 독자적으로 생존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라 설명하며, 실제로 지난해 10월까지 도내업체 수주액은 약 3.5% 감소한데 반해 외지업체들의 수주액은 3.5배 이상 급증하는 등 지역공공공사 발주가 외지업체들의 잔치판이 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한국도로공사 측은 새만금 지역기업 우대기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 안에서만 적용하도록 돼 있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에 지역우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 지역에서 발주예정인 고속도로 사업과 형평성이 어긋나 기준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역상공인들은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새만금 외 지역이지만 새만금 기본계획에 의한 새만금 동서2축의 일부분으로 연계 교통망 계획에 반영돼 있는 사업인 만큼 새만금특별법에 따른 새만금 지역기업 우대기준 적용이 가능다며 도로공사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하였다.

특히, 새특법 53조(지역기업의 우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라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전북상협 이선홍 회장은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공사가 반드시 새만금사업과 같이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으면 지역 각계각층의 뜻을 모아 제도가 시행될 때까지 모든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민근 기자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길"

농협 정읍시지부, 난방유 상품권 1000만원 전달

"올 겨울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어 우리 가족 모두 기대가 큽니다."

농협 정읍시지부(지부장 조천형)는 12일 정읍관내 참좋은사람들 사랑나눔공동체(대표자 유영준)를 방문해 고령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난방유 상품권 1,000만원을 전달했다.

농협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 사업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상품권을 전달 받은 참좋은사람들 사랑나눔공동체에서는 관내 취약가정에 전달할 계획이다.

조천형 지부장은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께서 생활하는 주거공간에 난방용 기름보일러 사용이 많다"며 "상생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난방유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변칙 상속·증여 검증 TF' 6월말까지 연장

#. 공직자 A(60대·남)씨는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는 아들 B(30대·남)씨에게 상가건물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했다. B씨는 A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과 사업소득 매출 누락으로 고가의 상가건물을 취득하고 증여세와 소득세 등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현금증여 누락분 수억원, 사업소득 현금매출 누락분 수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 대형 로펌 변호사 C(남·50대)씨는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딸 D(20대·여)씨에게 서울 송파구 아파트 취득자금과 강남구 고가아파트 전세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C씨의 배우자도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 자금을 다시 D씨의 아파트 취득자금과 중개사 비용 등을 대납해 주고 증여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부모로부터 현금 증여받고 누락한 증여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각 지방국세청에 설치한 '대기업·대자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태스크포스(TF)'를 6월말까지 연장·운영하고 탈세 혐의 등이 발생하면 3월 중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당초 변칙 상속·증여 검증TF의 활동 시한은 2월말이었으나 부동산 거래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 행위가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9일 이후 4차례에 걸쳐 1375명을 대상으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지금도 596명은 조사 진행 중이다.

현재 가격 급등 지역의 고가아파트 등의 거래에서 현장정보·관계기관 자료·세무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탈세여부를 전수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다운계약·자금원천 불투명 등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예외 없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3월 중에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이외에도 일감 몰아주기·차명재산 이용 등 적정한 세금 부담 없는 변칙적인 상속·증여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 진행중인 사안은 금융추적조사·사업체 조사확대 등 자금흐름을 면밀히 확인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겠다"며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관계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 조치하는 등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구독문의 288-9700

쉐보레, 설 연휴 특별 서비스 캠페인 펼쳐

쉐보레(Chevrolet)가 설 명절을 맞아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설 연휴 특별 서비스 캠페인'을 펼친다.

쉐보레 전 차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캠페인은 진단 장비를 활용해 엔진, 브레이크 및 타이어 공기압 점검, 냉각수, 엔진오일, 워셔액 보충 등의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며, 벌브와 휴즈 등 소모품을 무상으로 교환한다. 또한, 장거리 운전에 대비 차량 관리 및 안전 운전 요령에 대한 안내도 함께 실시한다.

쉐보레는 서비스 캠페인 기간 중 종합상황실(쉐보레 고객센터: 080-3000-5000)을 운영, 명절 기간 고향을 찾는 고객들이 전국 어디서나 긴급 출동 및 차량 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객 편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초과 납세자 돈 더 돌려받는다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종 추가 · 국세환급가산금 상향

올해 납세자가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다면 전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종이 추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관세법 등 13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국세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의 이자율을 조정한다.

국세환급가산금이란 잘못 낸 세금 등에 따른 국세 환급시 가산해서 환급해 주는 이자상당액을 말한다. 현재 정기예금 이자율(1.6%)을 적용하고 있으나 시행규칙 공포일 이후부터는 최근 시중금리 추이 등을 반영해 1.8%로 안상할 예정이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과세를 위해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을 환산하는 것으로 올해 1월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종도 추가된다. 추가 직종은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뿐 아니라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 등 종사자 등이다. 적용시기 및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이다.

또한 소상공인,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투자·상생협력 지출액 요건 규정도 개정된다. 은행·신탁업자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출연금을 지출액(지출액의 3배 인정)으로 추가한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율 우대 적용 대상인 신성장서비스업 범위도 규정한다. 시행규칙에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등의 업종을 정하도록 위임한다.

이밖에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위탁매매수수료에서 일임수수료 중 위탁매매수수료 성격의 비용을 추가한다. 올해 4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여부 등 보고주기가 줄어든다. 현재 심사를 거쳐 기재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정·지정기부금단체는 '매 2년'마다 의무이행 점검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토록 돼 있으나 보고주기를 '매년'으로 단축한다.

법인분할시 승계 가능 주식의 범위는 확대된다. 현재 주식 발행법인과 신설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70% 이상'이 동일 사업에서 사용될 때 과세이연이 허용된다. 정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 이후 분할할 때 '매출액 중 70% 이상'이 동일 사업에서 발생할 때 과세이연을 허용한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 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은 조정된다. 현행 중소기업은 임금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증가율(3.3%)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최근 3년 간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수준을 감안해 평균임금증가율을 3.6%로 조정한다.

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학술연구용품 등을 수입할 때 관세감면 대상기관을 추가한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입물품 관세는 면제한다. 외국무역선이나 항공기의 입출항 수속 때 세관직원이 해당지역에 직접 이동해서 사무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등을 감안해 출입허가 수수료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들 시행규칙은 오는 13~27일까지 입법예고·부처협의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 후 이르면 3월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뉴시스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홍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홍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